

레바논 베이루트 초대형 폭발 수천명 사상

두차례 폭발... 주변 초토화 사망 100명 부상 4000명

정확한 폭발 원인 확인 안돼

지중해 연안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4일(현지시간) 발생한 초대형 폭발 참사로 사망자가 100명, 부상자는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큰 폭발이 두 차례 있었다고 레바논 언론 '데일리스타'와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 폭발로 항구 주변 상공은 거대한 검은 연기에 뒤덮이고 많은 건물과 차량이 파손됐다.

과 관련해 4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폭발 원인은 어떤 공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폭발물이나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레바논의 안보 책임자인 아바스 이브라힘은 폭발 현장을 방문한 뒤 "당장 조사할 수 없지만 몇 년 전부터 보관된 물질이 있는 것 같다"며 "폭발성이 큰 물질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레바논 NNA통신은 베이루트 항구에 폭발물 저장창고가 있다고 전했다. 베이루트 항구의 한 근로자는 폭발이 폭발과 같은 작은 폭발물에서 시작된 뒤 커졌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베이루트의 폭발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다며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스라엘군과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집단 헤즈볼라는 최근 국경지역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등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이번 베이루트 폭발은 경제 위기가 심각한 레바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일에는 나시프 히티 외무장관이 정부의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사임했다.

레바논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70%에 이르는 국가부채와 레바논 파운드 가치 하락, 높은 실업률 등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10월 왓츠앱 등 메신저 프

로그래밍의 세금 계획에 대한 반발로 반정부 시위가 수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심화했다.

레바논 정부는 올해 5월부터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 지원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레바논은 1975~1990년 장기 내전 등으로 국토가 황폐해졌고 2011년 이후에는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레바논은 이슬람 수니파 및 시아파, 기독교계 마론포 등 18개 종파가 얽혀있는 '모자이크 국가'이며 종파 간 갈등이 정치·사회적 문제 원인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레바논 육군 헬기가 전날 발생한 대폭발로 건물들이 처참하게 부서진 사고 현장 위를 날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코로나19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지역 보건소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의료인이 한 남성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 코로나 위중환자 90% 퇴원 후에도 폐 손상

직장 복귀 절반에도 못 미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위중환자 가운데 90%가 여전히 폐 기능이 손상된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봉황망에 따르면 우한대학 중난병원 중환자실 펑즈용 주임이 이끄는 연구팀은 코로나19 증세가 위중했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 100명을 방문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90%의 폐 기능은 아직 건강한 사람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기 테스트에서 비슷한 나이의 건강한 사람들은 6분간 500m를 걸을 수 있었지만

만 코로나19 완치 환자들은 400m밖에 걸지 못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9세다.

일부는 퇴원 후 3개월 뒤에도 산소 장비에 의존해야 했다.

10%의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사라졌으며 5%는 핵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면역글로불린M(IgM) 검사에서 양성이나 다시 격리돼야 했다.

IgM은 인체가 바이러스에 공격받았을 때 생성하는 첫번째 항체로 IgM 검사에서 양성 나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막 감염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퇴원 환자들이 다시 감염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연합뉴스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70만명 넘어서

스페인·프랑스는 '2차 유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800만명에 올라선 가운데 사망자가 70만명을 넘었다.

미국과 인도 등에서 '1차 유행'이 끝났지 않은 상황에서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았던 스페인과 프랑스 등에서 '2차 유행' 기미가 보인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5일까지 누적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870만5096명, 사망자는 70만4385명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는 확진자와 사망자를 각각 1854만119명과 70만647명으로 집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지 7개월여만에 사망자가 70만명을 초과했다.

월드오미터 기준 사망자가 많은 국가는 미국(16만290명), 브라질(9만6096명), 멕시코(4만8869명), 영국(4만6299명), 인도(3만9820명) 등이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통계를 보면 몇몇 국가는 이미 2차 유행을 겪고 있다"면서 "겨울이 되면 2차 유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이 됐다"고 분석했다.

신규 확진자가 한때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중인 대표적인 국가로는 스페인과 프랑스, 이스라엘, 이란 등이 꼽힌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3월 말 7900여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200명대까지 내려갔으나 이달 초부터 다시 증가해 현재 1700명대까지 올라갔다.

프랑스는 4월 초 4500명대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가 늘었다가 300명대 안팎으로 감소했으나 지난날 말부터 다시 늘어 최근에는 700~800명대다. 중동의 이스라엘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4월 초 600명 안팎에서 5월 말 20명 아래로까지 떨어졌으나 그때부터 다시 급증해 지금은 1600~1700명대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日 방위상의 도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한국의 양해 필요없다"

北 상대 적용엔 한반도 직결 차기 총리 주자 강경 발언 논란

일본의 차기 총리를 노리는 정치인 중 한 명인 고노 다로(河野太朗) 방위상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 정책 변

경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 때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하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했고 전날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등이 중심이 돼 관련한 제언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선제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범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

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방위상은 일련의 대응이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한반도에도 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발언은 고노 방위상이 아베 총리 퇴임 후 다음 총리를 노리는 주자 중 한명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의 소지가 크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건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공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공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공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공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